

‘숨은 감염자 찾기’ 광주, 임시선별진료소로 익명검사 발걸음

코로나19증상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검사 가능
익명 검사자 많아 5개 자치구 선별진료소도 진행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것 보다 코로나19
검사하고 음성 판정 받은 뒤 연말 편하게 보내
고 싶어요.”

광주지역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
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돌파하는 등 기세가
꺾이지 않음에 따라 숨은 확진자를 찾기 위한
임시선별검사가 27일부터 본격 가동됐다.

이날 오후 1시께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
(아외음악당)에는 천막 5개동이 설치됐다.

천막 내부에는 방호복을 갖춰입은 방역요원
들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코로나19 증상유무와 확
진자 접촉, 역학조사 연관성 등과 관계없이 익
명으로 누구나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숨어 있는 감염자를 찾기위해 운용됨에 따
라 거주지역과 현대전화만 기입한 뒤 곧바로
검사가 이뤄졌다.

이 때문에 임시선별검사소는 비가 내리는

중에도 검사를 받기 위한 연인들이 비롯해 부
모 손을 잡고 온 어린이 등의 발걸음이 이어졌
다.

이내 100여명의 시민들이 찾음에 따라 야외
광장에는 긴줄이 형성됐다.

의료진은 코와 목에서 검체를 채취해 별도
의 용기에 보관하는 것까지 1분도 걸리지 않았
다.

임시선별검사소 관계자는 “비가 내리 시민
들이 없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많이 방문해 운
용요원을 더 배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결과는 하루정도 지난 뒤 휴대전
화로 통보해 준다”며 “가급적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익명 검사는 검사자가 원할 경우 5개 자
치구 선별진료소에서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 시민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식당
을 방문했다”며 “시간이 겹치지 않았지만 불



27일 오후 광주 서구 광주시청 광장(아외음악당)에 설치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안해서 검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은 “연말을 편하게 보내고 싶어

가족 모두가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방문
했다”고 짧게 이야기했다.

임시선별검사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
지 운용된다.
신봉우기자

장성군 신세계복지센터, 훈훈한 봉사활동 ‘눈길’

대한적십자·남도사랑봉사단과 세대 방문 청소 펼쳐



지난 23일 장성군 신세계 노인복지센터와
대한적십자, 남도사랑봉사단 회원과 함께
장성읍에 위치한 공공실버주택 세대를 방문



해 청소 봉사활동을 펼쳤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온정의 손길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참석자 모두 마

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신세계 노인복지센터 직원 11명 및
대한적십자 4명, 남도사랑봉사단 단장 외 1
명 등이 참여해 대상자의 집 실내외에 쌓인
생활 쓰레기와 재활용품, 고물들을 종류별
로 분류해 처리하며 구슬땀을 흘렸다.

장성읍에 거주 중인 서 모씨는 치매로 인
하여 인지기능 저하돼 정리정돈이 되지 않
고 있어 집안에 쓰레기 쌓아두고 생활해왔
으며 약취도 나고 있었다.

신세계 재가노인복지센터 신화순 센터장
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쾌적하고 안
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이되
보람을 느낀다”며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
고 자원봉사에 앞장선 분들께 감사하다. 지
역사회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지속적
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희희기자

곡성군, 지역 대표 ‘토란’ 우량품종 선발 성큼

내염성 강한 변이주 확보위해

처리 조건 특허출원 진행 중

곡성군이 지난 23일 지역 재배 토란 우량품
종 선발 및 생산력 검증 용역결과보고회를 개
최했다.

토란 전국 최대 생산지인 곡성군은 고유 품
종을 정립하고 우량품종을 선발해 지역특화작
물의 위치를 공고히 하고자 전남과학대학교와
이반 용역을 진행했다. 사업비로는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의 1시간 1특화작목 육성사업비와
곡성군의 자체 예산이 투입됐다.

토란은 국내 재배 환경에서는 유성생식이
되지 않아 새로운 품종 개발이 어렵고, 종자가
없어 종구를 사용해야하기에 저장이 중요하
다. 또한 토안 내 수분에 강하면서도 수분의 영
향으로 수량이 줄거나 모양이 길쭉해져 좋은
가격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애로를 해결하고자 연구 1년차인 울

해에는 토란 기내배양 증식조건 확립, 토란 수
집종별 생육특성 탐색, 토란 변이주 선발을 목
표로 추진했다.

현재 기내 배양 시 토란의 새싹 증식과 뿌리
발생이 우수한 배지 조건을 확립했다. 또한 토
안과 수경재배에서의 수량 특성을 분석했으며
토란의 품질특성시험을 의뢰 중이다. 특히 연
구를 통해 내염성에 강한 변이주 확보를 위한
처리조건을 확립하고 도출된 결과물에 대해
특허출원을 진행 중에 있다.

보고회에는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관계자가 참여해 용역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방향을 협의했다. 참석한 토란 주산지 농가
대표는 연구 결과에 큰 관심을 보이며 앞으로
도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의지를 보였다. 특
히 내년 2년차 연구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실증
시험 재배기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공함
으로써 연구 세부항목에 대해 함께 협의하기
로 했다.

곡성=양해영 기자

하나의 마음으로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코로나19, 우리가 함께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외출을 자제하고
최대한 집안에 머물러 주세요!



마스크 쓰기, 손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은 준수해 주세요!



악수 등 신체 접촉을 피하고
2m 건강거리를 두어 주세요!